

‘공룡 IT’ 탄생... 포털·모바일 업계 지각변동

■ 다음·카카오 합병 배경과 전망

경쟁력 극대화 위해 결합

네이버 독주 견제 ‘주목’

포털 2위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메신저업체인 카카오가 26일 합병을 공식 발표해 시가총액 3조원이 넘는 ‘공룡 IT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양사는 지난주부터 극비리에 본격적으로 합병 협상을 진행해 왔고,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뒤 주말을 기해 본격적인 협상을 계속해 왔다.

결국, 마라톤 협상 끝에 26일 새벽 최종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자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날 양사가 밝힌 합병 배경이다.

최세훈 다음 대표는 “양사는 서로가 부족한 점을 각자의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며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다음이 보유한 우수한 콘텐츠·서비스 비즈니스 노하우, 전문기술이 결합하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다음은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이, 카카오는 다음이 가진 콘텐츠와 광고네트워크 등 비즈니스 노하우가 구미에 맞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포털 2위 기업인 다음은 좀처럼 업계 1위 네이버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웹 검색 점유율은 어느새 7:3으로 밀렸고 모바일에서는 구글에 2위 자리를 빼앗겼다. 야심 차게 준비한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 역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위력에

별 힘을 쓰지 못하고 고전을 거듭했다. “만년 2등”의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 선택은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카카오였던 셈이다.

다음으로선 이번 합병을 통해 3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그림 등 카카오의 모바일 플랫폼을 토대로 차세대 먹거리인 모바일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한꺼번에 수천만명의 국내 모바일 사용자를 확보하면 기존의 포털 사업과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체를 평정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한 것이 최대 고민이었다. 또한 주요 수익 사업인 게임 부분의 성장마저 정체되면서 새로운 사업 모멘텀이 절실했다.

특히 주력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해외에서는 가입자 4억명을 돌파하며 상승장구하는 네이버 라인의 공세에 막히자 조바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전문가들도 이번 합병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음은 3년째 마이너스 성장 중이었으나 카카오톡은 성장하는 단계여서 합병하면 성장과 가격 측면에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송 현대증권 연구원은 “크게 보면 다음이 성장 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모바일 플랫폼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돼 다음과 카카오톡 모두 윈윈게임”이라고 평가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왼쪽)와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는 합병을 공식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010.35 (-6.82)

금리 2.83%

코스닥 548.83 (-0.87)

환율 1024.00원 (-0.60)



오비맥주, 몽골서 황사예방 '카스 희망의 숲' 조성

카스 판매금액 1% 적립

15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몽골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몽골 현지에서 황사 예방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국제환경NGO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에서 판매되는 ‘카스’ 제품의 판매금액 1%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모아 국토의 50%가 사막인 몽골 울란바토르 아이막(道) 에르덴술(郡)에 1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오비맥주 환경봉사단원들과 국내 대학생 환경동아리 ‘그린 단델리온(Green Dandelion)’은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에르덴술 지역에서 몽골 현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조림활동은 몽골의 나무 심는 방식에 맞춰 땅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포플러와 버드나무 등 묘목 500 그루를 심고 심은 묘목에 양뿔이로 직접 물을 떠서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막화로 생활 터전을 잃은 ‘환경 난민’의 자립을 돕는 자선사업도 함께 수행했다. 이와 함께 환경난민이 거주하는 에르덴술 인근 하늘마을의 담장 울타리와 거주지 시설을 보수하고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거주지 외벽에 예쁜 벽화를 그려 마을 주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오비맥주 정책홍보 최수만 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급속한 사막화는 결코 단시간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양국이 협력해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며 “오비맥주는 앞으로도 꾸준한 ‘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으로 몽골의 사막화를 막고 사막화의 피해자인 환경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행사장에서 35개 기업의 다양한 고용환경 개선 노력과 일·가정 양립 지원 사례를 담은 남녀 고용평등 우수사례집도 배포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적정 공사기간·인원·임금 보장하라”

광주·전남 건설노조... “수용 안하면 내달 상경투쟁”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인원, 임금 등 정부가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은 2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7월1일 상경투쟁까지 예고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2014년 대정부 요구안 및 총파업 선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700여명이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은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은 앞으로 비리와 부패의 건설현장, 죽음의 건설현장, 침몰하는 건설현장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다른 산업은 재해사망자 수가 줄어들이었으나 유일하게 건설산업만 12% 증가하고,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노동자”라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실질적 책임관인이 없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지와 나주 혁신도시 등 주요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돼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노조는 “적정한 공사 기간과 인원이 보장되고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어 부실 공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비리와 비자금의 온상인 인건비 착취와 부패 구조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탄압한다면 전체 건설노동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건설기능인 육성지원법 제정 재추진 ▲퇴직공제부금 1만원 인상 ▲최저가 낙찰제 폐지 ▲산업단지 노후설치 보수·교체 주기 단축 ▲건설현장 전문인력수 의무화 ▲타워크레인 풍속제한 재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조직체 총파업 투쟁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며 노조의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7월1일 건설노동자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여수 등 전국의 주요 국가산업

광주신세계 남녀고용평등 우수 대통령상

노동부, 기업·유공자 포상

광주신세계가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포상을 받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14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광주신세계 등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9곳과 한국고용정보보수영등 대표 등 유공자 15명을 27일 포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광주신세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법정 육아휴직을 2년으로 확대했고, 임신기간에는 임금 삭감 없이 단속근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점이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또 손영득 한국고용정보 대표는 지난 해에만 140명의 여성을 채용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창출했고, 육아휴직 대상자 103명 중 신청자 90명 전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행사장에서 35개 기업의 다양한 고용환경 개선 노력과 일·가정 양립 지원 사례를 담은 남녀 고용평등 우수사례집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2분)

전대상대2분
(미래로 아파트 용봉지구 코너)
신축 4층 룬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만)
매가 12억(보1억 용3억)
수익율 12% 11억5천

②전대정문, 후문1분(신축4층룸12개)★
1층 점포, 4층 고급주택, 월수익 450만 매가 6억7천(보3천, 용1억2천)

③나주 이창동 원룸★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용1억2) 수익율 13%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원룸형 투룸형원천역2분)★
원룸시설완비 올리모델링 전자제품 신규교체
•원룸형(10평) 3천3백(보증금 200, 월27, 용1000)
•원룸형(11평) 매가 3천4백(보 200, 월 27, 용1000)
★2채매입시★총매가6천5백(용2000만) 실투자 4500만
(월수익 54만원) 수익율15%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수완지구3층(85평)
매가3억5천
모아엘가 APT입구
5000세대
최고위치 노후보장
(학원, 사무실, 투자적합)
(보3천 월190만 용2억5천)
수익율 13%연 2400만원
전용을 높음

침단지구 상가매매2층

침단지구2층(62평)
매가1억7천
오션스파 임대
보증금2천 월90만
사무실 시설 완비
(주인직접 사용가)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계림동 4차선도로점 상암지 571㎡(173)공시지가 7억 은행 5억 감정 9억 5천선 매도 6억 2천
- 월산동 2층주택 동성초등학교 부근 대지 196㎡(59) 건평 162㎡(49) 큰 아파트와 교환도 가능 1억 5천
- 광주은행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8㎡(1200) 18억 2천

투자, 매도, 교환

- 쌍촌역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에 월 600선수익 매도 5억 2천
- 차평중학교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선 수익 5억2천
- 담양군 대덕면 관리지역 8553㎡(2587)공장,창고등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천
- 무인텔 적합 부지 나주시 송월동 상암지 1666㎡(504) 대출 13억선 매도 대출인수하고 3천만원
- 쌍촌동 5.18공원건너편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가게와 인접 원룸 15개 5억 6천
- 농성동 소방도로점 대지 206㎡(62)공시지가 매도 8500
- 보성중앙면 산 68430㎡(20700)교환가능 1억 3백
- 남구 사동 사직공원부근 10월 준공예정인 주택 85㎡ 은행 1억 5천선 생활여건중용 2억 3천
- 남구 서동 신축2층주택 대지 136㎡(41) 건평 132㎡ 임대 1억 4천 매도 4천 만원
- 나주시 산포면 별장부지 790㎡(234) 매도 1억원

임대

- 쌍촌동 운천역부근 원룸촌지역 1층 234㎡(71)오라실 호프집 대형식당 등 적합 보증금 5천에 월 230만원예정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 회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랜차이즈 입점)
- ▶ 북구 신용동 유지원 건물 매매 23억
- ▶ 광산구 신창동 4층건물 매매 27억(보4.1억 월1,240만)
- ▶ 서구 풍림동 대로변 3층건물 매 10억(보5천,월520만포함)
- ▶ 서구 치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 광산구 수완지구 상가건물 매매 110억

대지/전답

-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최적)
- ▶ 북구 용두동 생산복지 답 5,000㎡ 매매 12억(창고적합)
- ▶ 북구 용전동 생산복지 답 7,900㎡ 매매 29억(4거리코너)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복지 답 2,000㎡ 매매 6억5천
- ▶ 광산구 대산동 계획권지역 29,800㎡ 매매39억
- ▶ 서구 미륵동 생산복지 답 5,400㎡ 매매 20억
-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 세히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벽진동 창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에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